

월간 실적보고

2015.11

Summary of 2015 Nov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36.5%** 성장
 - 패키지 **25.8%** / 티켓 **57.2%** YOY 성장
 - 패키지 **13개월** 연속 **2자리수** + **2개월** 연속 인원 **10만명** 이상
 - 티켓 **16개월** 연속 **2자리수** YOY 성장률 (인원 **6.4만명**)
2. 일본 **63.7%** / 중국 **23.4%** / 유럽 **19.2%** / 전 지역 **2자리** 성장
 - 일본 기고 불구 **2개월** 연속 **40%** 이상 성장 (**14년 11월 95.6%**)
 - 중국 **2개월** 연속 **20%** 이상 성장
 - 유럽 회복세 지속 (**10월 14.4%** → **11월 19.2%**)
 - 전지역 **2자리** 성장률 (남태 **16.8%** , 동남아 **16.7%** , 미주 **10.1%**)

11월 : 기고효과 불구 3개월 연속 YOY 성장률 증가

11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36.5%, 송출인원 16.5만명. 6월을 저점으로 매월 증가하던 성장률은 11월에 36.5%를 기록, 높은 성장을 보였던 1Q15 평균 성장률 35%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특히, 14년 11월 성장률 19%의 기고효과에도 불구하고 약진으로, 향후 호실적을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11월은 4Q14부터 시작된 "유류할증료 인하에 따른 ASP 하락 효과"가 정상화 되는 시기로 인원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 간의 괴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것 입니다.

패키지 성장률 25.8%, 송출인원 10만. 2개월 연속 패키지 송출 10만명 상회, 15년 하반기 최저 성장률을 보였던 9월 (YOY 14%) 이후 가장 높은 성장을 하며, 여러 악재로 부터 벗어나는 한달이었습니다.

티켓은 성장률 57.2%, 송출인원 6.4만.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송출인원 6만명을 넘기며, 한달 만에 다시 50%를 상회하는 전년대비 성장을 기록, 지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5	100,865	64,524	165,389
2014	80,161	41,043	121,204
YOY	25.8%	57.2%	36.5%

패키지 YoY : 9월 14.1% → 10월 21.4% → 11월 25.8%

티켓 YoY : 9월 57.8% → 10월 47.8% → 11월 57.2%

총송객 YoY : 9월 28.4% → 10월 30.1% → 11월 36.5%

일본 63.7% / 중국 23.4% / 유럽 19.2% / 전 지역 2자리 성장률

11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63.7%, 중국 23.4%, 유럽 19.2%**, 지역별 인원비중은 **동남아 38.3%, 중국 25.1%, 일본 20.9%**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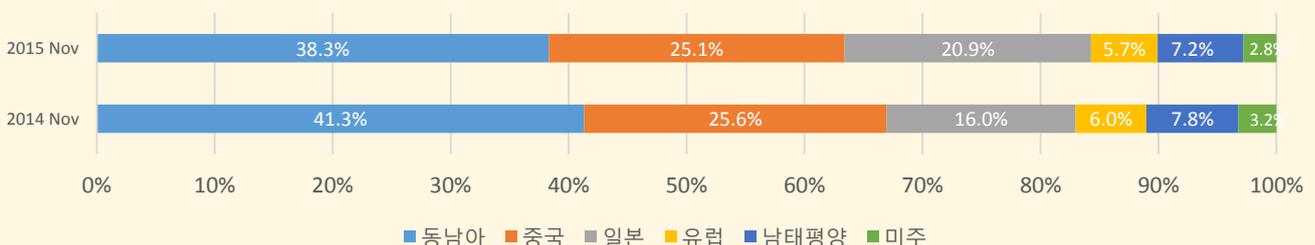
일본은 63.7% 성장, 전년 동월 95% 성장으로 인한 기고효과에도 불구하고 60%를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 여행지 자체의 인기와 우호적인 환율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본의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23.4%, 동남아 16.7%로 지난 달과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며 2자리수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유럽 19.2%, 8월 저점 이후 꾸준히 성장세를 높였고, 전년 동월 36%의 기고에도 높은 성장을 했습니다.

전 지역이 2자리수 성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전체적으로 10월 대비 개선된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2월	16년 1월	16년 2월
2015년	89,614	60,619	25,925
2014년	69,106	50,181	20,085
증감률	29.7%	20.8%	28.9%

* 2015.11.30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올 12월과 내년 2월은 30%에 가까운 전년대비 예약률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1월 또한 20%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고효과에도 불구하고 달성한 양호한 성적이며, 16년 상반기의 좋은 분위기를 가늠케 합니다. (전년 동시점 예약률 : 14년 12월 27% / 15년 1월 17.5% / 2월 29%) 1Q16의 좋은 모습은 2Q15의 악재였던 MERS로 유발된 이연수요 때문입니다. 14년 2분기 세월호 사고로 감소했던 여행수요가 15년 상반기의 높은 성장에 영향을 준 것과 동일합니다. 이같은 이연수요로 인해 기고효과가 중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16년 1월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지만, 이는 설연휴가 2월 2째주에 있어, 성수기 예약이 2월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15년 1월에도 설연휴가 2월 3째주에 있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11월 말 시점의 1월 예약률 17.5%로 조금 낮았지만 최종 예약률 30%로 상승, 마감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16년 1분기 전체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